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총력전

군,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서 호남권 설립 타당성 등 논의 전남대병원·광주과기원 등 인프라 활용 시너지 효과 기대

장성군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실무추진위원들과 차상현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07년부터 전남대학교병원과 10년 넘게 공동연구 중인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의 호남권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은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립심혈관센터의 호남권 설립 타당성과 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국립심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 특구 내에 설립되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광기술원, 전남대병원 등

이 지척에 자리하게 되고, 광주 첨단3지구에 AI 과학기술창업단지까지 들어서게 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인근에 축령산이 위치해 재활 요양에도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추진 상황 보고회를 거쳐 최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두석 장성군수는 "국립심혈관센터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장성에 설립돼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10년 노력이



장성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최종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난해 8월 광주

·전남상생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소리전수관 '국악교실' 연다

죽녹원 내 우송당서 내달 16일부터 4개월간 운영

담양군이 죽녹원 시가문화촌 내 우송당(又松堂)에서 담양소리전수관 국악교실을 연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출신 서편제의 대가 국창 이남지와 박동실의 맥을 이어 국악의 계승 보존과 대중화, 국제화에 앞장서기 위해 담양소리전수관 국악교실을 운영한다.

우송당은 담양 경제를 좌우하던 우송국재옹의 1920년대 건물로 전국의 재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수학하던 예인양성소 역할을 했으며 박동실이 판소리를 배우고 익힌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2004년 복원 이후 죽녹원 시가문화촌 내에 위치한 판소리, 대금 등 담양 전통의 서편제 맥을 잇고 배우는 담양

소리전수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양소리전수관 국악교실에서는 한국 판소리 전통음악연구소 권하경 명창을 강사로 민요, 장고, 판소리, 고법 4개 분야의 강좌가 열리며 국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실은 다음달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금요일과 주말에 각 분야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예총 담양지부(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총 담양지부(061-381-74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주민이 기자·아나운서 돼 뉴스 만든다

화순군, 농촌마을 미디어 교육 '벽화가 있는 석복마을 뉴스'

화순군의 농촌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사가 되고 아나운서가 돼 뉴스 만들기에 한창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인 '벽화가 있는 석복마을 뉴스' 교육이 남면 원리에서 진행 중이다.

남면 원리 주민 1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전문 교육을 위탁해 다음달 28일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다양한 방송 장비를 활용해 농작물 재배 소식, 마을 이

야기 등을 주민들이 직접 뉴스로 만들 예정이다.

김용신 남면 원리 이장은 "시골 주민들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뉴스를 만들어 보겠느냐"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주민들에게 미디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과의 미디어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화순군 남면 원리 주민들이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가 있는 석복마을 뉴스' 제작에 나섰다.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을 들고 포즈를 취한 주민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농기계 임대 사업 갈수록 인기

농촌 일손 덜고 비용 절감 효과...올 상반기 2509건 20% 늘어

화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기계 임대 건수는 총 25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92회와 비교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임대 농기계 현장배송 서비스는 화물 차량이 없는 농민부터 영농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 여

성 농업인, 귀농인에게 만족도가 높다.

실제 올 상반기 농기계 현장배송 서비스 이용 건수는 2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55건과 비교해 증가율이 45%에 달한다.

임대사업은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매 부담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효과를 평가한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콩 등 8개 주요 작물을 재배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경우 임작업료 절감률은 52%, 작업 시간 감소율은 90%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쳐왔다. 화순군은 올해 초 '2018년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돼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예산 2억원을 확보해 발작물 농기계 13종 38대를 구매·배치했다.

주요 발작물인 콩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일관 기계화 재배)' 추진을 위해 국비 1억원(총사업비 2억원)도 확보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성 황룡강 일부 구간 낚시금지 지역 지정

장성군이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보호를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7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군민 납세편의 증진

담양군이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고 고지내역 확인과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 또는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며 이후 8월 주민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대로 금융기관의 CD·ATM이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중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